

총을 든 스님

아침을 열며



이승현 강진백운동전시관장

내어주면서도 생각 없이 따라다닌다. 벼루는 붓과 먹을 허용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고요하다. 둔한 것은 명이 길고, 예리한 것은 요절한다. 고요한 것은 명이 길고 요동하는 것은 짧기 때문이다. 이것은 양생(養生)의 법(法)이다.”

유문화사에서 펴낸 중국 당송시대 명문을 모은 책, 고문진보후집(古文眞寶後集)에 실린 당경(1071~1121)의 글이다. 무려 천 년 전 사람의 글이 주는 교훈이 묵직하다. 정권을 잡은 지 불과 2~3년만에 폐기, 수거된 무리들과 거창한 계획의 수명이 날(日)이나 달(月)로 끝나버렸으니 그 쓰임이 한 자루 막-붓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붓은 우두머리요 먹은 하수인들이고 벼루는 국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쯤해서 생뚱맞다고 생각되는 이 글의 제목을 설명해야겠다.

‘총을 든 스님’은 부탄의 민주주의가 처음 도입된 2006년 시기의 상황을 그린 영화다. 부탄(Bhutan)은 인도와 티베트사이, 아시아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인구 수 약 80만명의 작은 나라다. 종교와 왕이 절대적 가치를 지닌 부탄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그 첫 걸음으로 선거를 치르게 되는데 선거명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년월일조차도 모르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혼란을 겪게 된다. 국민을 편의상 빨간당, 파란당, 노란당으로 편을 나누고 선거는 서로 친하게 지내면 안 되고 싸우듯 해야 한다는 선거감독관들 말에 마을사람들은 왜 무례한 짓을 하라고 하나면서 그런 선거는 필요 없다고 거부한다.

영화의 마지막은 큰 스님인 라마가 보름날 재를 지낼 때 쓸 총을 구입해오는데 그 재는 탑을 하나 더 만드는 일이다. “이 탑에는 흥년이 들 때 먹을 곡식과 전염병이 들 때 먹는 약을 넣는다. 아래 토대에는 증오와 갈등과 고통을 상징하는 총을 묻는다.” 경찰관들이 차고 있던 총과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나무칼들도 던져진다. 그러곤 그것들을 꺼내지 못하게 돌로 채우고 콘크리트로 발라 버린다. 살

생을 금하는 불교국가인 부탄에서 스님이 총을 든다는 역설적인 설정을 통해 부탄의 민주주의 도입이라는 역사적 순간을 의미심장하게 그려낸다. 통찰과 풍자가 감동을 주고 민주주의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한국은 총을 들고 후진국이라 치부하는 부탄을 총을 묻는다.

정당간에 혈투를 벌이는 한국과 편 가르고 이간질 시키는 정당과 선거는 필요 없다는 부탄, 어느 나라가 선진국인가? 폭력적 혁명이나 극심한 사회적 갈등 없이 국왕 스스로 절대 권력을 내려놓고 민주화를 이뤄가고 있는 부탄의 민주주의와 순박한 풍속을 수입이라도 하고 싶다.

민주화 이후 계엄이라는 것은 일어나지도, 일으키지도 않을 것이라는 피로 쓴 ‘국민적 합의’와 불문율이 일거에 깨져버린 것이 무엇보다도 가슴 아프고, 국민을 향해 총을 들라고 한 계엄에 반대한 장군이 한명도 없이 때를 지어 합세한 군인들을 보면서 절망했다. 대통령을 구세주나 만능으로 생각하는 정치신념이나 시스템이 무용지물이 되고 합의나 협의, 중재 같은 정치가 실종되어버린 현실도 답답하다. 한국에서 계엄이나 내란을 일으키면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교훈을 얻은 것이 소독이라고 하기에는 극심한 혼란과 갈등과 비용을 드린 대가가 너무나 크다. 독점적 정치체제, 성장만을 위한 질주, 압축된 민주화의 병폐 등 사회 전반의 반성과 재설계가 있어야겠다.

“실없이 하는 말이라도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요. 실없는 행동도 꾀하였기에 만들어지는 것이다. 소리로 표현하고 손발에 나타나는 것이거늘, 자신의 본뜻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리에 맞지 않는 이야기도, 다른 사람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라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속이는 것이다”라는 장재(張載)의 좌우명은 이번 내란 사태에 연루되고 발뺌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다. 가담자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재판관들은 지혜롭게 밝혀줄 것이다.

社說

미래 10년 준비 필요한 아시아문화전당

서울 예술의전당 넘어서야

올해 개관 10주년을 맞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이 지난해까지 누적 방문객 1900만명을 돌파하며 복합문화공간으로 위상을 확인했다. 지난해는 개관 이래 최대인 320만 명이 방문했다고 한다. 반가운 일이다. 그렇다고 만족할 수는 없다. ACC가 개관 10주년을 넘어 미래 10년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콘텐츠부터 자생력 확보까지 갈 길이 멀다.

ACC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광주를 문화를 통해 부흥시키기 위한 지역특화형 전략사업이다. 국가가 나서서 문화도시를 조성한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도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기도 하다. 특히 ACC는 연면적 15만6438㎡, 지하 4층-지상 4층 규모로 12만㎡인 서울 예술의전당을 넘어서는 규모를 갖췄다. 매년 방문객이 늘어나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무등산국립공원과 함께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한국인이 꼭 가봐야 할 관광명소 100선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계도 분명하다. 다양한 국가의 문화를 아우르는 전시와 프로그램은 다채롭지만 지역과의 연계가 부족해 지역민의 관심을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ACC에 주어진 가장 큰 숙제다. 예산과 자원이 한정돼 대형 프로젝트나 국제 행사의 유치도 제한적이다. 창작과 제작 활동을 ACC가 맡고 대중적 프로그램이나 편의시설 운영을 아시아문화전당재단이 담당하는 이원화 형태도 업무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우수한 지역의 예술문화인재들을 적극 활용하고 순수 예술은 물론이고, 상업성이 높은 공연이나 전시를 유치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지난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광주 문화수도육성’을 제시한 것은 문화산업을 광주의 미래 먹거리 전략 산업으로 만들겠다는 큰 그림이었다. 정부와 자치단체는 이제 그 그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재정과 운영시스템 등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광주다운 콘텐츠를 제작하고 시민과 예술 중심의 운영 시스템을 만들려는 문화계와 시민의 힘도 필요하다. ACC는 광주·전남의 신성장동력이며 시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얼굴이다.

금타, 공장이전 실현가능 계획 내놔야

행정절차 등 후속조치 불과해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21일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방문해 “이전에 협력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과거 광주시는 중국 자본의 ‘떡튀’ 논란 등을 이유로 현 공장부지의 용도변경 불가에 대한 완강한 입장이었다.

새해 들어 이전 논의로 선회한데는 최근 금호타이어의 경영실적 향상 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금호타이어의 지난해 전체 실적은 연결 매출액 4조5700억원, 영업이익 6007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각각 13.1%, 46.1% 증가할 것으로 금융권은 예측했다. 1조원대의 천문학적인 이전 비용 등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보다 이전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훨씬 더 많은 긍정적 효과를 준다는 조사결과도 한 몫한 것으로 보인다.

공장 관할구인 광주 광산구는 지난

해 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및 주변 지역 기초조사 및 발전 방향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공장 이전 후 현 부지를 개발할 경우 추정 생산가치는 약 5000억원, 부가가치는 약 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공장을 현 상태로 유지했을 때보다 10배 정도 높다는 결과다. 과거 금호타이어가 제시한 공장이전 계획은 현 부지 개발을 통해 이전비용을 조달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현 부지 용도변경은 특혜의 소지가 있고, 최근 부동산 불황에 제대로 이전비용을 조달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컸다.

광주공장 이전은 오롯이 금호타이어의 몫이다. 이전에 따른 부지 용도변경 등의 행정절차는 후속조치에 불과하다. 결국 금호타이어 측이 확실한 현 광주공장 부지 개발사업자의 구체적 개발계획과 공장 이전비용 조달 계획 등을 우선 제시해야 한다. 광주시의 전략적인 태도와 지역사회의 움직임 등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성공적인 금호타이어 공장 이전으로 광주의 교통 관문인 광주송정역 일대 발전의 큰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서석대



RE100(Renewable Energy 100)은 ‘재생에너지 전력 100%의 약자’로 기업 활동에 필요한 전력 전부를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인 글로벌 캠페인이다.

최소 2050년까지 RE100 달성을 목표로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 주도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RE100에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 등은 포함되고 원자력은 제외된다.

한국은 지난해 기준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RE100에 참여하지 않은 기업들은 수출 경쟁력 저하, 거래처 관계 악화, 재생에너지 조달 어려움, 환경 규제 강화 등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겪을 수 있다.

중국(30%)은 정부 주도 정책으로 세계 최대 재생에너지 생산국이 됐다. 미국(22%)은 주정부 지원으로 빠르게 성장 중이다. 일본(12%)은 태양광 발전을 중심으로 점진적 성장을 이어가고 있다.

2023년 기준 한국 재생에너지 비율은 9%에 그친다. 세계 평균(30.3%)과 OECD 평균(33.5%)에 크게 못 미친다. 태양광·풍력 비율은 5%로 일본(12%)과 중국(16%)보다 낮아 OECD 최하위 수준이다.

RE100 달성이 저조한데는 구매 지원 부족과 기업 참여 저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다. RE100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나 마찬가지다.

국제재생에너지기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용은 이미 화석연료보다 낮아졌다. 이는 재생에너지가 환경보호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RE100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주요 관심 사안으로 등장해 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22년 2월 21대 대선을 앞둔 토론회에서 당시 국민의힘 후보였던 윤석열 대

통령에게 “RE100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물으면서 RE100에 대한 관심을 보여줬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의 질문에 대해

“RE100이 무엇이나”라고 되레 반문한 바 있다.

현재 윤 대통령의 직무는 탄핵안 가결로 정지됐고 헌법재판소 판결을 남겨둔 상태다. 만약 현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이 나올 경우 60일 안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한국은 RE100 목표 상향과 정책 일관성이 시급하다. 기후 위기 속에 RE100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의무이자 분산 에너지 정책의 핵심이다.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높은 전남은 RE100의 최적지로 꼽힌다. 수도권에 집중된 에너지 과다 소비 기업들에게 기회를 땅이다. 풍부한 신재생에너지가 생산되는 곳에 기업이 들어서는 RE100이 전남에서 실현된다면 ‘진정한 국토 균형 발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선용 취재2부 기자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